

편집자 서문

한국법사학회의 전문학술지 『법사학연구』 제55호를 발행합니다. 1973년 3월에 설립된 한국법사학회가 1974년 7월에 『법사학연구』 창간호를 발행한 지 44년만에 제55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. 출발 당시부터 ‘소수’ 학회의 학술지였던 『법사학연구』가, 수많은 전문학술지들이 등장하고 있는 학계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, 끊임없이 이어져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자축하고자 합니다.

법사 연구는 과거의 거울에 현재의 법을 비추고 현재의 거울에 과거의 법을 비추는 작업입니다. 나아가 법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면 거울에 서로 비추어 지혜를 이끌어내는 학문적 작업입니다. 이 작업은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, 실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한반도에서는 더욱 필요한 작업임을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에 이르는 법사의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. 광복 후 초유의 ‘탄핵’을 둘러싼 법사는 여전히 진행형이지만, 그것이 중요한 ‘법사’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숙고하는 ‘법사’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.

이번 제55호에 실린 「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」은 ‘김영란법’으로 세칭되고 있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조선시대의 분경금지 제도와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‘현재진행형의 법사’에 대한 접근으로서 주목됩니다.

이번 제55호의 특징은 무엇보다 서양법사에 관한 세 편의 논문을 실고 있다는 것입니다. 「부당이득법상 suum recipit 논거 검토-고전기 로마법상 지시 사안을 중심으로-」, 「건물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 제도에 관한 비교 민법적 고찰」, 「토마스 아퀴나스와 매매에 있어 하자의 고지 의무-로마법, 신학대전, 현행 민법의 연결 가능성을 중심으로-」가 그것입니다. 한국

법사학회가 한국법사 연구는 물론이고 동양법사 및 서양법사 연구도 아우르는 한국의 법사 연구 전문학회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보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또한 이번 제55호는 두 편의 서평(「김백철, 『법치국가 조선의 탄생: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』(이학사, 2016)」, 「Ulrich Manthe · Shigeo Nishimura · Mariko Igimi(공동편집), Aus der Werkstatt römischer Juristen: Vorträge der Europäisch-Ostasiatischen Tagung 2013 in Fukuoka (Duncker & Humblot, Berlin, 2016)」)과 한 편의 자료(「東京大學 法學部 도서관 소장 “秋曹受教”」)를 신게 되어 더욱 풍성한 학술지가 되었습니다. 법사 연구에 있어서 서평과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, 논문이 과도하게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서평과 자료에 대한 주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생각할 때,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이번 제55호에 훌륭한 옥고를 실어주신 필자 여러분께,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다음 호에도 많은 훌륭한 글들을 모아 ‘풍성한’ 『법사학연구』를 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2017. 4. 30.

『법사학연구』 편집위원장